

111주년 3.8 세계여성의날 여성노동환경 얼마나 나아졌을까?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75년, UN에서
매년 3월 8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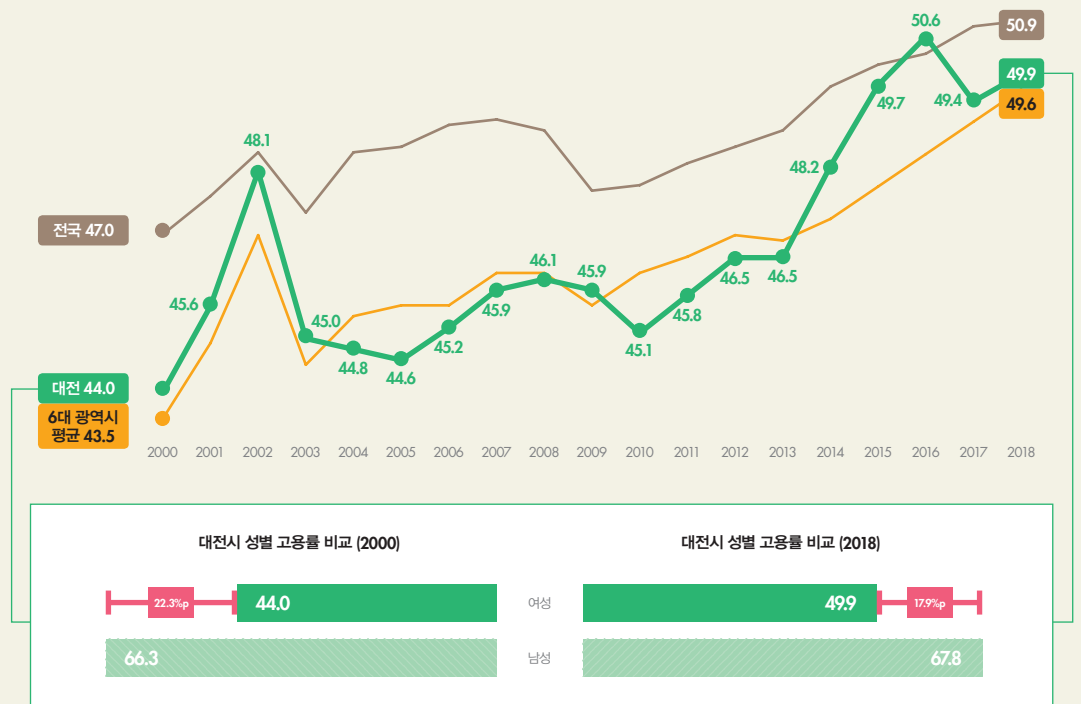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려면, 1908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12~14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해야 했으나, 정작 그들은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도 부여받지 못했다. 이런 비합리적인 대우에 1908년 3월 8일 1만 5천명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은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빵은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기념하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대전 여성 고용률 2000년 대비 5.9%p 상승, 그러나 여전히 남성보다 17.9%p 낮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 고용, 노동'이라는 주제로 대전 여성 근로자의 현황, 취업에 대한 인식 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자. 실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중 얼마나 취업상태에 있는지 파악하는 고용률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 2018년 대전의 여성 고용률은 49.9%로 전국 평균(50.9%)보다 1.0%p 낮다. 2018년 6대 광역시 '여성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인천이 53.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광주(51.0%), 대구(50.3%), 대전(49.9%), 부산(46.8%) 순이었고,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46.3%)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2000년(44.0%) 대비 9.0%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대전(+5.9%p)은 광주(+7.8%p), 울산(+6.9%p) 다음으로 높았다. 대전의 남녀 간 고용률 격차를 보면, 2018년 여성(49.9%)은 남성(67.8%)에 비해 17.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남녀차이 22.3%p)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큰 격차다.

6대 광역시 '여성 고용률' 변화

단위 :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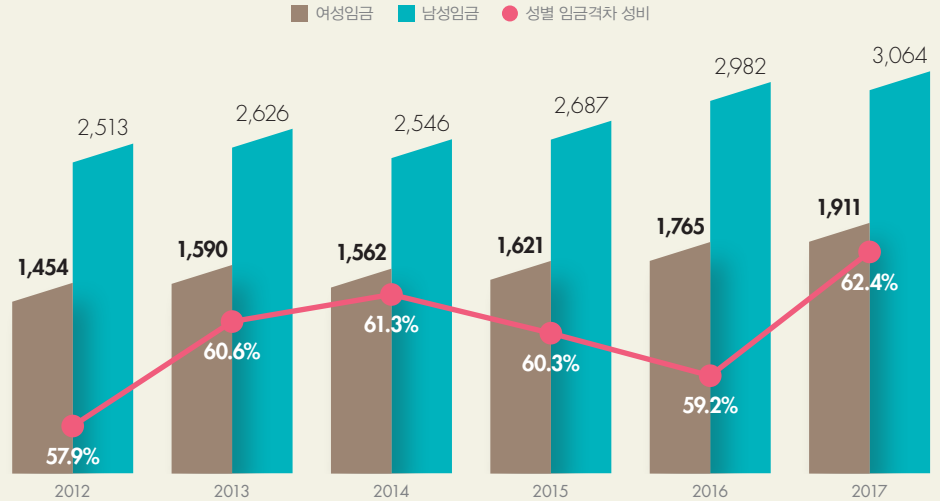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남성 100만원 벌 때 여성 62만원 벌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의 '성별 임금격차 성비¹⁾' 세부지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전의 성별 임금격차 성비는 62.4%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100만원을 벌 때 여성은 약 62만원을 버는 셈이다. 연도별 비교를 하면, 남성 대비 여성의 평균임금 수준은 2012년(57.9%)부터 2014년(61.3%)까지 소폭 상승하다 2015년(60.3%)과 2016년(59.2%) 주춤했다. 이후 2017년에 다시 상승하면서 2012년에 비해 4.5%p 올라 성별 임금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대전 '성별 임금격차 성비' 변화

단위 : 천원



1)성별 임금격차 성비는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여성과 남성의 평균 임금 차이가 완화되었다는 의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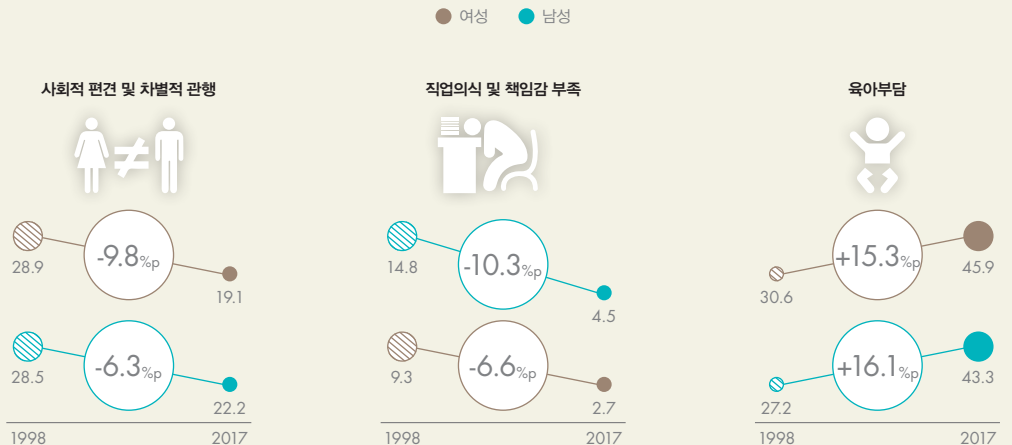
*취업자의 지난 3개월 평균임금
*성별 임금격차 성비: 여성임금/남성임금*100
*2011~2012년은 4분기, 2013년 이후는 하반기 자료임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취업을 가로막는 사회적 편견은 줄었다 느껴지지만, 육아부담은 늘어나

대전시민들이 생각하는 '여성 취업 장애 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했을까? 1998년에는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성은 '육아부담'(30.6%)을, 남성은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28.5%)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7년에는 '육아부담'이라고 응답한 여성 45.9%, 남성 4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998년과 2017년 항목별²⁾ 응답비율을 비교해 보면 증감률이 가장 컸던 세 가지 요인이 눈에 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취업의 걸림돌로 '육아부담'을 꼽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두드러지게 감소한 요인으로는 여성은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 남성은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이었다.

대전 '여성 취업 장애 요인' 변화

단위 : %



2)'여성 취업 장애 요인'의 응답 항목은 '사회적 편견 및 차별적 관행',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채용, 임금 등)', '여성의 능력부족', '육아부담', '가사부담', '구인정보 부족', '가족돌봄(육아제외)', '기타', '모르겠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항목의 연도별 비율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참고하기 바람. 응답 항목 중 '구인정보 부족', '가족돌봄(육아제외)'는 1998년 이후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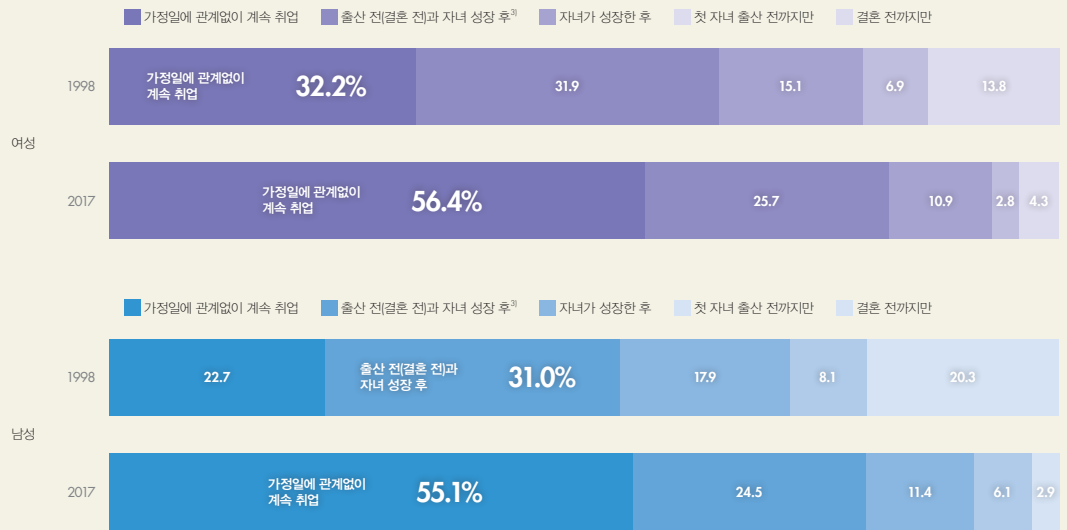
* 1998년~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1년 이후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됨
* 2006년 이후는 우선순위 응답형식으로 바뀐에 따라, '여성 취업 장애 요인'의 1순위만을 집계한 '주된 응답' 자료를 사용한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여성, 남성 절반 이상, '가정일과 관계없이 계속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통계청 사회조사의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문항은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여성이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르겠다'로 응답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한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언제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취업 시기에 대해 묻고 있다. 그렇다면 대전시민들의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와 시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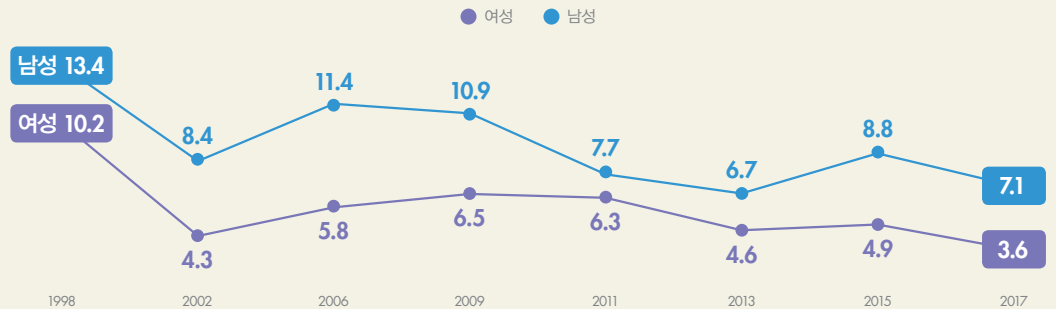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면, '어느 시기에 취업하는 것이 좋을까?'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전 여성의 비율은 90.4%로 1998년(87.6%)에 비해 2.8%p 증가했고, 남성의 비율은 83.8%로 20년 전(83.3%)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했다. '여성 취업에 찬성한다면, 어느 시기에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2017년 사회조사에서 여성(56.4%)과 남성(55.1%) 모두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을 가장 많이 꼽았다. 1998년과 비교하면, 여성은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32.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 '결혼 전과 자녀 성장 후'³⁾(31.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순위 변동은 없었다. 반면 남성은 '결혼 전과 자녀 성장 후'(31.0%)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이 22.7%로 뒤를 이었다.



여성 취업에 대해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대전 여성은 1998년(10.2%)보다 큰 폭으로 줄은 3.6%로 나타났고, 남성 또한 1998년(13.4%) 대비 2017년(7.1%)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일을 중요시하는 남성 비율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취업시기문항의 '출산전과자녀성장후' 응답항목은 2011년 이전에는 '결혼 전과 자녀 성장 후'로 조사되었음

*2002년 이전은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라는 명칭으로 조사됨
 *1998년~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1년 이후는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됨
 *1998년과 2002년은 일부 자료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 원자료를 분석함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문항에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제외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 3.8 세계여성의 날 # 성평등의식 #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TEA & TALK “성평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대전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성평등 또는 인권윤리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와 '2019년 성평등 의식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성희롱 실태조사' 이후 기관 내 변화가 있었으나, 성평등 의식 확산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4월 중 대전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종사자 대상 성평등 의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평등한 일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개인의 성차별적 태도나 고정관념'과 '성평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무관심 또는 부정적 태도'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성평등 의식조사'에 반영되길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관리자급의 성평등 의식 정도를 물어보는 설문 항목이 있었으면”

“남직원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연구자들이 알아줬으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주관식 문항이 필요해”

“규모가 작은 기관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수거방법이 보완되어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문항이 있었으면”

제1회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통합 16회) 세종시 여성가족정책 추진기관의 현안과 과제

대전과 세종의 상생 기반 구축을 위해 '세종시 여성가족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9년 4월 17일(수) 14시
장소 세종시청 5층 세종실

구분	시간	소요시간	내용
개회	14:00~14:05	5분	주혜진(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발표	14:05~15:05	60분	발표 1 '세종시 가족센터의 현황과 과제' / 허미용(세종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발표 2 '세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황 및 과제' / 황미영(세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15:05~15:15	10분	중간 휴식
지정토론 및 패널질의	15:15~15:50	35분	좌장 - 이영세(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정토론 - 최해경(충남대학교 사회복지와 교수) - 최성은(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폐회	15:50~16:00	10분	총합 정리